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인 7월 8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 장군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및 로동적위군 명예위령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및 로동적위군명예위령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또한 인민무력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을 우

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훈장보존실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용하시던

렬차,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사용하시던 승용차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 장군님의 태양상이 모셔진 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 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을 돌아보시고 새로 조직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7월 8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항일무장투쟁기기관, 민주주의혁명기기관, 작전관, 군종별종관, 승리관, 중국인민지원관, 국제지지성원관, 공훈무기관, 로획무기관, 대전해방작전전경화관을 비롯한 여러 관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전시된 사적물들과 자료들을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비롯한 16개국의 무력침범자들과 남조선 피리들을 타승하고 빛나는 승리를 쟁취한 것은 혁사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한마디로 사상의 승리, 전략전술의 승리, 정신의 승리라고 말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우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함으로써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제국주의침략자를 타승한 영웅적군대, 영웅적인민으로 되었다고 하시면서 후대들은 전세대들이 이루한 업적과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빛나게 계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주체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올해에 문학예술부문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모란봉악단을 친히 조직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1974년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새로 일어세운 후 지금까지 별로 순을 대지 않았는데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념관을 현대적으로 개선보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선보수사업을 인민군대가 맡아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일군들과 강사들이 앞으로도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7월 6일 새로 조직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주체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올해에 문학예술부문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모란봉악단을 친히 조직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끊임없는 애국현신의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관람자들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1부와 2부로 구성된 공연무대에는 경음악 『아리랑』, 여성4중창 『그대는 어머니』, 여성2중창 『내 마음 별에 담아』, 여성5중창 『배우자』, 여성2중창 『이 강산 높은 영 험한 길우에』, 경음악 『예쁜이』, 경음악과 노래 『승리자들』, 여성3중창 『녕번의 비단처녀』, 여성6중창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네』, 여성3중창 『들꽃 세송이』, 현악4중주 『그 품 떠나 못 살아』, 외국곡들인 경음악 『차르다쉬』, 『싸바의 너왕』, 『별의 세레나데』, 『결투』, 『승리』, 『뻬넬로뻬』, 『이제 끝 날 아오르리』, 『장미빛을 띤 메뉴에뜨』, 『나의 길』, 『집씨의 노래』, 『달라스』, 여성6중창 『붉은기 펄펄』, 경음악과 노래 『세계 동화명곡묶음』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모란봉악단은 내용에서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형식에서 새롭고 독특하며 현대적이면서도 인민적인 것으로 일관된 개성있는 공연을 무대에 펼쳤었다.

불과 10여명의 연주가들이 몸에 뚝 배인 세련된 연주기법으로 대관현악단이 내는 장중하고 풍부하면서도 장쾌한 선율을 멋들어지게 울렸으며 젊은 가수들은 꾸상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여 노래를 정서적이고 흥취나게 불러 무대를 시종 결정과 환희로 달구었다.

제인 안삼불과 화려한 무대조명의 효과로 하여 청각과 시각적으로 변화무쌍한 공연은 음악형상창조의 모든 요소들을 예술적으로 완전히 조화시키였다.

전설적위인의 독창적인 음악정치에 의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주체음악의 면모를 감동깊이 보여준 공연은 너성6중창 『당을 노래하노라』,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령도자』로 막을 내렸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에 대한 흠토의 정으로 하여 장내는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적인 창조기품을 발휘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시범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공연, 시대의 숨결이 막바치는 약동하고 생신한 공연, 내용과 형식이 새로운 경지에 오른 공연이라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모란봉악단의 연주가들과 가수들이 모두 전도가 양양하다고 하시면서 악장인 선우향회동무가 정말 잘한다고 치하하였다.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인민들이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보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출연자들과 호흡도 잘 맞출것이라고 하시면서 전승절에 즐음하여 공연을 진행할때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앞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 장군님의 애국유산인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여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힘있는 나팔수, 기관차, 군대와 인민의 참된 길동무로서의 사명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국소식

오가산식물전시관 새로 건설

또한 전시관 주변에는 오가산의 각이한 해발고에서 자라는 120여종에 수천그루의 나무들이 뿌리내린 3정보의 수목원이 꾸려져 있다.

참관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가산자연보호구 분포도를 세워져있다.

식물전시관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새로 개관된 오가산식물전시관을 끊임없이 찾고있다.

본사기자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철저히 관철하자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7.4공동성명리행을 거부해나서고 있는 반통일분자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깨닫고 공동성명의 발표가 가지는 사변적의와 그것이 조국통일운동에서 차지하는 역사적지위, 조국통일3대원칙을 학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과 그 관철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한치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관철해나가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이로작은 조국통일위업의 근본초석을 다져준 강령적지침으로서 온 거례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후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을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천명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관철에 온 거례를 힘 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천명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관철에 온 거례를 힘 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민족자주의 원칙과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독창적지침으로서 온 거례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여 자주

통일위업실현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신분도 위대한 장군님 이시다.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조국통일령도업적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져 영원히 빛날것이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그를 구현한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통일을 넘원하는 우리 거례가 앞으로도 범위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근본초석이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민족의 평화통일지향에 여행하여 열역전쟁의 검은 구름을 물아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반전평화수호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결점적답보이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시고 민족의 대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높이 모시여 민족의 앞길은 창창하며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파남, 해외의 온 거례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그 구현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주통일의 역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할것이다.

온 거례는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리행하기 위한 정의의 통일에 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야 한다. 민족자주와 배치되는 외세와의 『공조』를 단호히 배격하고 사대매국세력을 고립 약화시켜 매장해버려야 한다.

민족의 평화통일지향에 여행하여 열역전쟁의 검은 구름을 물아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반전평화수호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결점적답보이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시고 민족의 대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높이 모시여 민족의 앞길은 창창하며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파남, 해외의 온 거례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그 구현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주통일의 역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할것이다.

김희숙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 주석은 자주의 빛 밝고 혁신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거창한 실천 활동으로 민족번영의 세기적 변혁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심으로 하여 지난날 역사 밖에 밀려났던 인민대중이 시대와 혁사의 중심에서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가는 혁사의 새 시대, 주체 시대가 펼쳐져 되었다고 하셨다.

지난 20세기가 시작되었을 때 수억 수천만의 피암박 인민대중은 19세기와 다름없이 암흑 속에 몸부림 치고 있었다. 지구의 주인은 여전히 제국주의와 지배 세력이었다.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근본 요구와 이해 관계를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한 진로를 옮기바로 가리키는 지도 리념이 있어야 한다. 오랜 세월 슬기로운 지혜와 힘으로 혁사를 창조하고 빛내여온 우리 민족이 세기와 세대를 이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지 못한 채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고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되게 된 것은 자기의 요구와 지향이 담긴 지도사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 민족이 일제의 군화 발에 짓밟혔던 수난의 시대에 탄생 하시여 성장 하시며 책이 아니라 현실에서 인민들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체험하고 절감하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민족이나 아길 참된 길을 모색하셨다. 인민을 중심에 놓고 시대의 본질을 투시하는 비범한 안목과 천리 해안의 과학적 통찰력, 폭넓은 분석 판단력으로 시대와 혁사를 파고드시는 그의 진지한 사색과 탐구는 화정의 숙지 절에 도, 지린에서 옥중 생활을 하실 때에도 계속되었다.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시여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광휘로운 빛이 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암흑의 그 세월 한다 하는

자주의 빛 밝은 영원하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

애국자, 독립 운동자들은 인민의 힘을 믿지 못하고 허송세월 했다. 3·1 운동기와 6·10 만세 시위도 해보았지만 지도사상이 없어 실패와 좌절을 면할 수 없었다. 혁명의 리치를 알았더라면 민족의 의로운 애국지사들이 머나먼 유대 대륙의 회의장으로 찾아가는 헛걸음을 걷지 않고 인민대중을 찾아 그들을

계몽해 조선 독립 운동에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조선 민족의 모든 불행과 수난은 투쟁의 진로를 밝혀줄 자기의 사상을 가지지 못한 탓으로 차례진 당국사의 멀연이였다.

기나긴 혁사에 문화 있던 인민의 본심지향을 자주로 정립하고 시대의 요구로 내세우신 그 공적 하나만으

여름 한철이라 평양의 금수산에서 제일봉으로 이르는 모란봉은 수려함의 풍자여 간 아니고 산책으로 불비는 사람들의 발길 끊기지 않아 또한 이제 봅다. 봄을 우거진 정수리를 이르러 6세기 중엽에 평양성의 북장대로 세운 최승대에 오르면 대동강의 통라도가 한폭의 멋진 그림마냥 한눈에 안 드는다.

김일성 주석께서는 새로 독립한 나라들의 민족간부문제 해결로 성실성의 도와주시였다. 또한 그들이 자력갱생의 길로 나가도록하는데 깊은 관심을 들리시였다.

정녕 김일성 주석은 국제 판례에서 찬다운 협조의 모범을 창조하신 진보적인 주체의 태양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진보적인 주체의 태양으로 흡모하는

류에게 광명을 주고 미래를 준 주체사상을 창시하는 김일성 주석의 위대성과 업적을 세계가 공감하고 경탄했다.

김일성 주석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것은 신화 속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것과 대비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인류사적의 의를 가지고 있다. 『주체사상은 우리 민족뿐이 아닌 세계 진보적인 주체의 태양이다』라고 언명했다.

절세 위인들의 사상과

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에 의해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여 우리 민족과 진보적인 주체의 태양이다. 선조들은

모란봉과 통라도가 지쳐인 산수유명한 곳이라 해서 련

진 그림마냥 한눈에 안 드는다.

태교직부터 실실이 키워들어진 능수버들이 구슬 같은 맑은 대동강 물 위에

비단 필을 놀인듯 아름답다

했다는 통라도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자연이 뿐 아니라 창조미가 어울려 더더욱 경관이다.

한평생 조국 강산을 사랑하고 인민의 복리를 위해 마음 쓰신 위대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님의 길을

제일봉을 살피는 통라도

는 5월 1일 경기장과 통라

도는 5월 1일 경기장과 통라

굴욕적인 친일 매국 행위의 후과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려는 일본의 망동이 더욱 로끌화되고 있다.

『원자력기본법』과 『우주기본법』 개정을 통해 핵무장화와 우주의 군사화를 다그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일본이 이번에는 『집단적자위권』까지 행사하려 하고 있다.

제침열에 들뜬자들의 군국주의적인 광기이다.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일본이 법적으로 규제해놓은 것이다.

일본은 전후 다시는 침략전쟁을 벌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고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 것을 헌법에 조아보았다.

그것으로 일본은 『평화국가』라는 명분을 세웠다.

그러나 오늘 일본은 그것을 거치지 않은 장애물로 여기면서 그 제한조치를 하거나 풀어 광개 치고 있다.

『집단적자위권』이란 자기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군사적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기 나라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무력으로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따라서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가 마는가는 것은 일본이 침략의 길에 나서는가 나서지 않는가를 가르는 기준으로 된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는 로그적인 『평화헌법』 위반으로, 전쟁 행위로 된다.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선재침의 합법적 구실을 마련하는데 있다.

미국과 군사적으로 밀접한 동맹관계에 있는 일본은 조선반도 『유사시』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지원』의 명목으로 조선재침전쟁에 빠져나온다.

『집단적자위권』이란 자기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군사적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기 나라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무력으로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얼마전 남조선의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저들의 주요 외교정책 추진에 대해 광고하는 『2012년 외교백서』에는 일본과 악합해서라도 한파줄을 나누는 동족을 기어이 해치고 『체제통일』 야망을 실현해보자는 것이 리명박당이 주구하고 있는 속심이다.

백서에서 그들은 『불확실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안정적 판리』, 『인도적 문제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니 뛰니하고 저들이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 평화를 위해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허영하게 놀아냈다. 특히 지난해에 『북의 핵실험과 대남도발』이 없고 두차례의 비핵화 남북회담이 개최된 것은 저들의 『원칙있는 대북정책』의 성과라고 떠들어 댔다.

역적폐당이 최근 일본과의 굴욕적인 군사협정 체결 강행 놀음을 등으로 내외의 규탄에 밭리를 남조선호전광들의 광란적인

이로부터 남조선보수당국은 혁신과 독도강탈책 동등 일본의 조선재침책 등을 주는 위험천만한 반민족적 행위로, 쓸개빠진 친일매국 행위로 된다는 것은 더론 할 여지가 없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내외의 한결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핵파 미싸일 위협』을 떠들며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을 시도하는 리명박『정부』의 책동을 『북을 선제 행위로 하려는 일본의 군사재침책 등에 기울여 일본과 함께 친일매국 행위로 된다는 것은 더론 할 여지가 없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을 시도하는 리명박『정부』의 책동을 『북을 선제 행위로 하려는 일본의 군사재침책 등에 기울여 일본과 함께 친일매국 행위로 된다는 것은 더론 할 여지가 없다.

온 거래는 지나온 혁사는 물론 오늘의 남조선현실을 통하여 침략자와 미국노가 어울리고 살판치는 곳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리익은 물론 신성한 영토미지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다.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을 해치려는 쓸개빠진 리명박보수집권세력의 죄악은 반드시 결산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일본의 협동강탈책 등을 조장시켜주고 재침의 칼

을 벼리도록 부채질한 역적 무리가 바로 리명박보수집권 세력이다.

온 거래는 지나온 혁사는

물론 오늘의 남조선현실을

통하여 침략자와 미국노가

어울리고 살판치는 곳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

엄, 리익은 물론 신성한 영

토미지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다.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을

해치려는 쓸개빠진 리명박보

수집권세력의 죄악은 반드시

결산되어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북침전쟁책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시시각각 전쟁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하기에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북침전쟁책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시시각각 전쟁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하기에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온 거래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사랑의 요람에

다시 안겨

남조선으로 유인당하였다가 공화국의 품에 안긴 박정숙녀성이 받아안은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대한 이야기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심정이 그려진 대로 박정숙녀성 자신의 심정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그처럼 그립던 조국땅에 첫발을 들어놓는 순간 아름벌게 안겨진 환영의 꽃다발… 지방에서 살던 자기에게 수도의 한복판에 살림살이 조건을 다 갖춘 당실한 집을 안겨주고 김원경평양음악대학 교단에 있는 아들과 함께 모여 살도록 보살펴준다 심한 그 은정.

파연 내가 그 사랑의 백분의 일이라도 받아안을 자격이 있는가. 박정숙녀성은 한가슴에 받아안기에 너무도 아름찬 사랑에 어리둥절했다. 생각할수록 이 모든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예로부터 죄중에서도 제일 큰 죄는 나리를 배반한 죄라고 일컬었다. 나리를 배반한 죄는 죽어서도 죗수 없다고 하였다.

일시적인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쁜놈들의 고임에 빠져 조국과 정다운 이웃들, 일가친척들을 버리고 배신의 구렁텅이에 깊숙이 빠져들어갔던 그였다. 하기에 저주로운 남쪽땅에서 공화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였을 때 그는 용서받을수 없는 죄로 하여 어머니조국이 드는 회초리를 기꺼이 달게 받을 각오를 하였다.

그러나 조국에서 기다리는 것은 엄한 처벌이 아니라 꿈에도 생각지 못할 사랑이었으니 박정숙녀성은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대해 같은 은정에 걱정의 눈물을 쏟았다.

정녕 박정숙녀성은 알고 싶었다. 나라앞에 셋을수 없는 죄를 지은 자기의 과거를 조금도 탓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한풀에 안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마음을 리는 인민사랑의 진실을 알고싶었고 그 깊은 뿌리를 알고싶었다.

하지만 짧은 사대로 드넓은 대하의 깊이를 어이 갚수 있음을. 조국땅에 것 말을 들어놓았던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작은 가슴으로 경애하는 그이의 숭고한 인민관의 무한대한 폭과 깊이를 다는 알 수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 의거하여 혁명하려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철저히 광범한 인민대중,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시고 아껴주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지난 6월 공화국에서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공화국력사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기할 사변으로 기록된 경축행사대표들의 절대다수

가 평범한 가정에서 선출되었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많

을 대하는데서 그이께서는 누구나 차별없이 보살펴주고 아껴주시는 가장 진실한 감정을 지니고계신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나라를 배반하는 길을 걸었던 박정숙녀성이 누리는 새 삶의 기쁨과 행복,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몇몇 사람들에게만 차례진 행운도 아니다.

그것은 김정은최고령도자

의 열화같은 인민관, 광폭의

인더정치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인 것이다.

남조선의 한 인사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하나

하나의 행보는 전부 인민,

인민이시다. 인민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였다. 남쪽

에는 이런 진정있는 결정

이나 애정, 책임같은것이

없다. 그이처럼 빠져깊은

인민사랑을 지닌 지도자는

동서고금에 없다고 경탄하

였듯이 한때 길을 잘못 들

어 천길나락에 굴러떨어졌

던 사람까지도 인민이라는

대하의 한복판에 세워주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인

민사랑의 정치는 만사람의

매혹을 자아내고있다.

박정숙녀성은 자기의 격

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

같으신분은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꼭 같

으신 김정은장군님 계시여

나는 따지지 말고 철저히

학습과 조직생활, 좋은일

하기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소년단원들을 기본으로 선

발하도록 몸소 그 대상과 기

준까지 정해주신 경애하는

그이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